

교회소식

1. 오늘 2부 예배는 각기관 월례회로 모입니다.
2. 오늘 오후예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연습 2시, 소망관)
3. 전교인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도우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청년말투스 여름 지역선교활동이 8월15~16일 심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동정

- 휴가 : 정기훈 강도사 8월 7일~13일, 최영준 목사 8월 11일~17일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이성은 장욱자 박경숙 이재우
- 헌물 : 박은정집사(호산나 찬양대 찬양곡집 헌물)
- 개업 : 김남주집사 설만한물가(웃수선,이불제작)
- 이사 : 전용술(정은주)집사 한숲A 105동 1201호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일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남9,10목장	제6여전도회	쉽니다	쉽니다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8월 행사

- 3일 : 정기제직회, 신일비전헌신예배
- 4~5일 : 한마음 전교인 수련회
- 10일 : 각 기관 월례회
- 14~15일 : 당회원 수련회
- 17일 : 제4남, 5여전도회 헌신예배
- 27일 : 정기당회

◆8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8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역, 이진석, 곽복남,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70장(구79장)
새285장(구209장)
우리 보좌앞에 모였네

기 도 1부/남동균 장로
2부/안재경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고린도전서 6:12~20 (신 P268)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기 도 설교자

찬 송 ... 새295장(구 417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원용국 장로
2부 / 김명권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시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최 영 준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전용술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요한복음 20:24~29(신 P183)

찬 양 호산나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믿는자가 되라

찬 양 ... 새545장(구344 ... 다같이

광 고 사회자

축 도 설교자

✚ 다음주 기도/ 육공일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 새257장(구189 ... 다같이

기 도 김영희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마태복음 6:9~13(신 P89)

말씀선포 설교자

우리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찬양 남 7, 8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 9, 10 목장

✚ 다음주 기도 / 김선영 집사

Since. 1978

No 32. 2014. 8. 10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터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눌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할렘교회/김해
- 3.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4.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옹달샘드롭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보라, 강현선(임희자), 강해성(김성환), 곽은태(윤순녀), 강경대(전선녀), 김대윤, 김영화, 김숙현, 김영필(심남희), 김재곤(한영실), 김종남, 남희종(김영자), 박영숙A, 박유연, 박은정, 소용섭(김다엽), 소재익(김미화), 신정혜, 안재경(송영남), 안주모(조양순), 오정석(정주희), 윤선숙(염순자), 이선화, 이성은(정), 이승효(성월용), 이옥영(김영자), 이진석(윤혜진), 이혜숙, 전양순, 정승환(정옥자), 정인택(이정숙), 정재만, 정홍재(김수희), 최계록, 무명3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곽은태(윤순녀), 김건국(김성욱),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영화, 김영민(함현숙), 김종중, 김진온(김남주), 남희종(김영자), 박근용(최윤자), 박상임, 박석문(정민선),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혜진, 소용섭(김다엽), 소재익(김미화), 신정혜,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무주(권유순), 엄기준,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우성환(정혜민), 원용국(김복금), 윤성욱(김신혜), 이도화, 이영일(홍은미), 이인호(정지혜), 전용술(정은주), 정기훈(최연옥), 정옥자, 정홍재(김수희), 최계록,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한영실, 황돈수(박정자), 무명

✦ 선교헌금

김재곤(한영실), 김종남, 남희종(김영자), 박은정, 박혜진, 소용섭(김다엽), 소재익(김미화), 안주모(조양순), 우성환(정혜민), 이영일(홍은미), 이옥영(김영자), 정홍재(김수희)

✦ 일천번제헌금

강해성, 김건국(김성욱, 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박남수, 박유연, 안스디자인, 안영현(영인, 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리화), 정은숙(안소연, 진형, 진성), 무명

✦ 비전헌금

강일창(고숙자), 강춘자, 강현선(임희자),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영민(함현숙), 김영필(심남희), 김재곤(한영실), 김종남, 김진승(윤리미), 남동균(윤현덕), 남희종(김영자), 박근용(곽복남), 박근용(최윤자), 박상임, 박석문(정민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유연, 박은정, 소용섭(김다엽), 소재익(김미화),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우성환(정혜민), 우호선(김순자), 윤성욱(김신혜), 이승효(성월용), 이영일(홍은미), 이옥영(김영자), 이은화, 이진석(윤혜진), 정갈원(정채순), 정태수(김정희), 정홍재(김수희), 조성철(이혜련),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무명

✦ 맥추감사헌금

김연태

✦ 목적헌금

김종남

목장현황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정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정소
남1초원	1 김종남						여3초원	5 김채욱					
	2 강일창							6 고속자					
남2초원	3 박근용						여4초원	7 곽복남					
	4 김명권							8 성영옥					
남3초원	5 남동균						여5초원	9 구남량					
	6 안재경							10 정혜민					
남4초원	7 오승엽						여6초원	11 함현숙					
	8 박순국							12 김복금					
남5초원	9 조성철						여7초원	13 정옥자					
	10 이인호							14 이경미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여8초원	15 신윤경					
	2 김명숙							16 김춘복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여9초원	17 한은정					
	4 정채순							18 서남지					

금주의 말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6:12~20

사람들은 물건에 값을 매겨서 가치를 결정합니다.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보석으로 만들면 값이 비싸지만 질그릇은 싼다. 물건의 가치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물건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에 따라서 효용가치가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어쩌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1.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 정, 의를 지닌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신묘약측(약역한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품은 대량생산입니다. 같은 제품의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소성이 있습니다.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유행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상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작가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66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창조의 작품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걸작품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계속해서 집을 나간 타락자처럼 세상으로 달려가 써야 할 것을 위해 인생을 허비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린 비상처방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장 끔찍한 자주의 형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죄는 무생물이나 생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인간에게만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선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타락합니다. 인류의 번성과 함께 죄는 더 번성하게 됩니다. 죄는 인격에 불어서 화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을 지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흘림 없는 죄사함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온밀하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열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19-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예수짜리 인생”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놀라운 신적교환(Divine Exchange)이 이뤄졌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용서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3.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기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주님의 피 값을 주고 성전 삼아주시 우리 몸도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합니다. 본문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된 자로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얼마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신의 뜻을 따라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부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발견합니다. 그가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다.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생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로마의 복음전파를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임을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뜻, 아람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너무나 이롭고 가치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역경이나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소명의 문제로 사명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